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뜨거운 감자’ 부각

제주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11일간 일정으로 어제 개회 좌 의장 “국토부 책임있는 정책결정” 촉구 속 갑론을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2회 임시회가 22일 개회된 가운데 첫 날부터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쟁점이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다.

좌남수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와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그동안 도민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던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통합’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국토부는 이같은 도민 의견을 존중해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좌 의장은 이와 더불어 “타 지역보다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충격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주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빠르고 강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각종 조례나 지침에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규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도민 화합 없이 제주사회는 미래를 향한 길

에 단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다”며 “앞으로 도의회와 도는 도민통합을 이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지혜를 함께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의장에 이어 여야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상반된 입장이 표출되며 논란을 예고했다.

내달 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는 제주도와 교육청의 업무보고외에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관련 입장 및 갈등해소 방안,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이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드림타워 관련 의견정취를 비롯 보름달 풍력발전지구 등의 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에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장·이전 방안에 대해 도의회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2일 제392회 임시회에 돌입해 내달 4일까지 회기 일정을 이어 나간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오는 26일 ‘LT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논의하게 된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름달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지정 동의안도 이번 회기에 심사될 계획이다.

이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다뤄진다. 강다해기자 dhkang@halla.com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여·야 해석 제각각

여 “갈등 해소·통합 나서야” 야 “통계 수치로 승복 어려워”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의 현실이며 도민 의견을 존중해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결과가 제2공항 사업을 무효화할 수준은 아닌 데다 오히려 도민사회에 새로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맞섰다.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번 제2공항 건설 전체 도민 여론조사의 결과는 현재 제주의 현실을 내보이는 스펙트럼”이라며 “특히 소외 정치를 하신다는 분들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찬성·반대가 말하는 숫자에서 벗어나 찬반 대립의 극심한 갈등이 더 이상 피뎌지지 않아야 하며, 도민의 걱정·불안을 들여다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오영희 의원은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제2공항 사업 자체를 무효화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도민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제2공항 건설 갈등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오영희 의원.

소를 위한 범도민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통계 수치를 근거로 ‘승복’을 요구하는 모습은 전 도민의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며 “갈등해소를 위해 실시된 여론조사 이후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우려하는 여론이 크게 생겨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민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제2공항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범도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원희룡 도지사에 대해서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원 지사가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지나치게 소심한 대응이 아니다”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제2공항 사업 무효화 결정을 내리면 수용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에게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다해기자

“코로나 방역, 제주경제 재도약 최우선”

원희룡 도지사 주요 업무보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원희룡(사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 도정 최우선 목표를 코로나19 방역으로 삼고 제주경제 재도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는 22일 제주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도정 주요 업무보고에 즈음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2021년은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며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제주도정은 청정과 공존으로 여는 더 큰 제주를 목표로 철저한 방역을 통한 도민 생명과 안전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도민 생존위기 극복과 재도약, 새로운 제주미래를 위한 전환과 혁신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도정은 유통·수송부터 관리, 접촉과 이상 반응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



틈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강도높은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도민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무척 크다”며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해 피해분야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공공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2021년은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는 해로, 한 단계 더 발전된 특별자치도를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도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겠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한 혁신을 담아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는 도의회와 협의에 따라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며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도민통합과 공동체 회복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다해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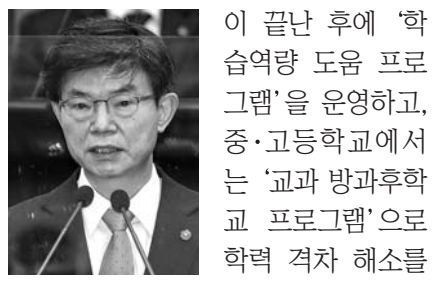
“코로나19 따른 학력 격차 해소 온 힘”

이석문 교육감 주요 업무보고 “개학 이후 안전 노력·지원”

이석문(사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올해 코로나19에서 나타난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를 중심으로 평가 혁신의 희망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2일 열린 제3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 제주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즈음한 인사말”을 통해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교 현장 실현 ▷ ‘책 읽는 습관’의 확산을 위한 독서교육 활성화 ▷ 예술·놀이교육 확산 ▷ 소프트웨어·AI교육 및 환경생태 교육 확대 ▷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건강 지원 ▷ IB 중심 평가 혁신 ▷ 과학적이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등 주요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



이 끝난 후에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학력 격차 해소를 지원하게 된다”면서 “난독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표준중과 표준초, 토산초는 올해부터 IB 교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올해 표선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프리-IB(Pre-IB)’를 받으며 IBDP를 준비하게 된다”면서 “공교육에 썩든 IB 프로그램을 뿌리내리면서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평가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육감은 “도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3월 2일에 정상적으로 입학식과 개학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일주일과 3월 이후를 가장 안전하게 보내는 데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제주도 사회적경제 실천 확장 추진

‘사회적 가치 실현대상’ 시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공존하는 제주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 등을 발굴·시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처음 시행되는 ‘사회적 가치 실현대상 시상식’은 도내 기업들이 지역 내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산변동 4급 ↑ 공직자 신고

제주도는 내달 2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2021년 정기 재산 변동신고서를 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인허가·위생·토목·건축 등 특

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며, 12월 31일 기준 총 1051명이다.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강다해기자

도는 올해 상반기 중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와 사회적경제위원회(협의정책심의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심의를 거쳐 시상상을 위한 사회적 가치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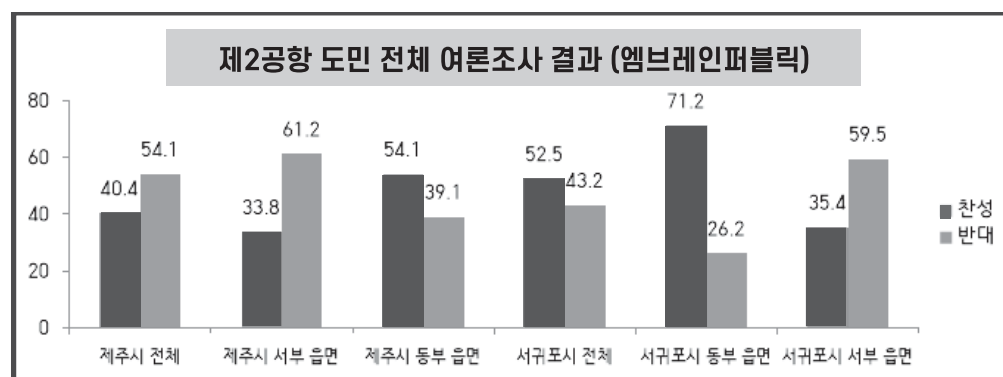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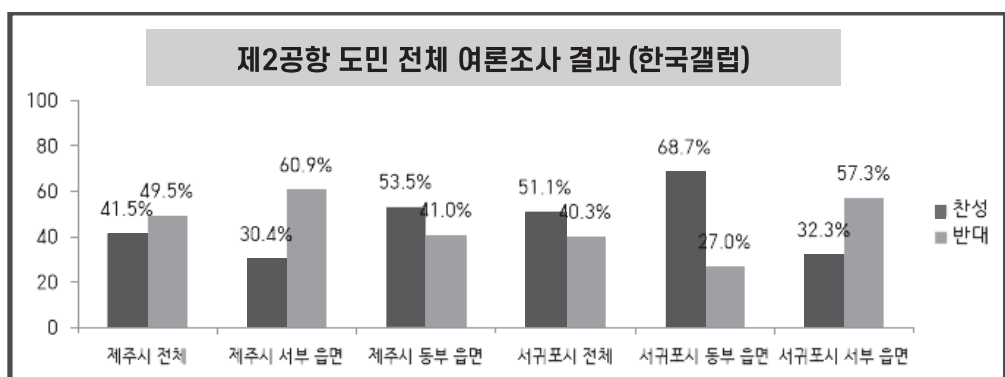
이와함께 도는 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제4기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개편함으로써 지역 내 각 계층으로부터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한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강다해기자

지역이기주의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다.

제2공항 여론조사는 성산과 서귀포시와 동부읍면, 제주시 동부 읍면에서 찬성이 매우 높다. 제2공항 예정지의 뜨거운 민심이다.

제주시와 제주시 서부권 읍면지역, 서귀포시의 서부권 읍면지역은 반대가 높다. 제2공항과 무관한 지역이기주의다.

국토부는 주민 수용성을 보장하고 제2공항을 추진하라!!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